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Fukushima

NOW

Vol.14 (2020년 12월 발행)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재해 복구를 향한 활동과 국제교류·협력단체 활동, 외국출신 현민의 목소리 등, 후쿠시마현의 '지금'을 다국어로 알리고 있습니다.

※번역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타이틀 '힘내자 후쿠시마' 로 시작된 'Fukushima NOW'는 올 3회 게재될 내용을 후쿠시마현의 부흥과 재생에의 발걸음에 대한 특집 시리즈로 발행합니다. 2 번째인 이번 시리즈는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재해전승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후쿠시마의 경험을 미래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째가 되는 금년 9월 20일, 후타바마치에 동일본대지진·원자력재해 전승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전승관은

- ① 원자력재해, 부흥기록과 교훈 '미래로 계승·세계와의 공유'
- ② 후쿠시마가 겪은 원자력재해 경험과 교훈을 살린 '방재·감재'
- ③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사람들, 단체와 연계해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전통 재생, 부흥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 등의 '부흥 가속화'에의 기여'

이상 3개의 기본이념을 들고 있습니다.

개관 46일째로 방문자 수가 2만인을 돌파한 전승관은 전시자료, 카타리베[※]증언 등 정보발신의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지금까지의 경험이 차세대에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동일본대지진과 원자력재해를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 사실을 바탕으로} 후쿠시마의 미래를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윗사진: 전승관 외관, 왼쪽아래사진: 전시실 내관(후타바마치 원자력 홍보탑등), 오른쪽아래사진: 전시자료(해외에서 온 응원 메시지)



동일본대지진·원자력재해 전승관 사업과 카이 유유키씨

중학교 때 오코쿠마마치에서 재해를 입었고 금년부터 동일본대지진·원자력재해 전승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이벤트와 오리지널 상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전승관이 낳은 역할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재해 상황을 보존하는 것, 그 후의 상황과 진행을 발신하는 것, 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은 전시 이외에도 연수와 조사 연구 등의 사업과도 관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Q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를 통해서 후쿠시마현 부흥의 현황, 과제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스, 전시견학, 카타리베 증언, 오오히라야마레이엔과 JR 후타바역등을 버스로 주유하는 필드워크, 후리카에리워크숍 5개의 내용입니다. 참가자는 20~240명 정도이지만 그 외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Q 이 일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9월 20일에 무사히 오픈을 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스태프분들의 유니폼도 담당했는데, 완성된 것을 보니 기뻐했습니다.

Q 방문자들이 꼭 봤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1일 4회 실시되는 카타리베의 증언입니다. 카타리베는 실제로 피난생활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체험담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하나되는 활동을 야마키 자넷 필레 씨 (필리핀 마닐라 출신, 후쿠시마시 거주)

2019년 12월 말 현재, 후쿠시마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자는 2719명, 중국, 베트남에 이어 현 내 3위입니다.
(『후쿠시마현의 국제화 현황』/후쿠시마현 국제과발행).
‘HAWAKKAMAY FUKUSHIMA(하와쿠카마이후쿠시마)’는 필리핀과 인연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올해부터 회장으로 취임한 자넷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인터뷰: 2020년 10월 27일)



- ‘하와쿠카마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필리핀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지진 후에 일본에 왔고 ‘하와쿠카마이 후쿠시마’ 회원이 된 것은 2년 전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후쿠시마 시내의 대피소나 가설주택에서 필리핀식 야키소바인 비혼 요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거나 노래와 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타갈로그어 광고지도 작성했습니다.

- 2016년에 후쿠시마에 오셨는데, 필리핀과 다르다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지나갈때 차들이 길을 터 주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도 놀랐습니다. 제가 살았던 마닐라시는 차들로 혼잡한데, 긴급 시 일본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특히 강한 것 같습니다.

- 현재 ‘하와쿠카마이 후쿠시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타갈로그어인 “HAWAKA KAMAY”는 일본어로 “손을 잡자”라는 의미입니다. 지역과 하나가 되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노인시설에서 크리스마스파티를 열었습니다. 다같이 노래를 부르며 할머니할아버지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Scenes of Fukushima

외국인을 위한 전문상담회 (주최: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후쿠시마현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가족을 위한 상담을 전문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전화로 대응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통화료는 유료)이며, 비밀은 엄수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법률상담회>

접수내용 : 생활에 관한 법률상담
신청기간 : 1월 5일~1월 26일

<행정서사 대응 전화상담회>

접수내용 : 출입국, 재류, 국적 등의 수속절차 상담
신청기간 : 2월 2일~2월 24일

다국어 부흥정보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후쿠시마현 부흥 상황의 최신 데이터와 식품 안전·안심을 위한 활동,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분들의 활동 등을 10개국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태국어) 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창구 - 11개국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베트남어·태국어·
네팔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15

☎024-524-1316 ✉ask@worldvillage.org (상담전용)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 024-524-1315 📠 024-521-8308

✉ info@worldvillage.org

🌐 <http://www.worldvillage.org>

Facebook <https://www.facebook.com/fiainfo>

Twitter https://twitter.com/fia_info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들려 주십시오. 또한 알고 싶은 정보나 Voices from Fukushima 에 등록 가능한 후쿠시마현 거주 외국 출신자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인 또는 추천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